

승부를 뒤집는

클러치 타임



SPORTS SEOUL CULTURE

2026 No. 403

09 + 10

승리를
향한 질주
—
서울의 이름으로
오늘도 한계를 넘어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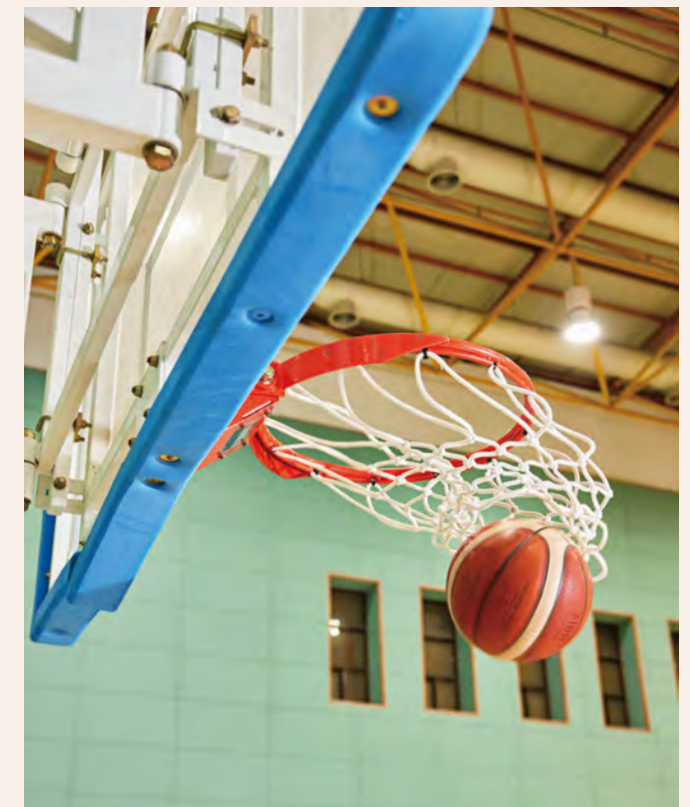
—
집중의 순간

—
치열한 승부



—
그리고 승리

꿈을 향한 집중,
서로를 믿는 움직임
—
그 모든 순간이
서울체육의 힘이 됩니다



Contents

www.seoulsports.or.kr

발행일 2026년 9월 3일
발행인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편집인 김성범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진욱 동국대학교 교수,
이준성 연세대학교 교수
편집 홍보마케팅사업단장 박용학
홍보마케팅팀 박혜진, 서승환
등록번호 서울 라 4818
발행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웹진 news.seoulsports.or.kr
디자인 및 제작 ㈜이팝

본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VIEWfinder

- 6
- 스포츠의 말들
- ① 경기장을 채우는 우리들의 함성
- ② 스포츠 영화와 음악이 예술적으로 만나는 순간
- ③ 선수와 팬을 잇는 승리의 주문



FOREground

- 14
- 지금 스포츠는
- 학교 운동장의 적막...
- 과도한 민원과 책임에 위축되는 체육 교육
- 16
- 라이벌 매치
- 냉정한 승부의 세계를 뛰어넘은 뜨거운 포옹
- 이상화 vs. 고다이라 나오
- 18
- 서울체육 이야기
- 영광의 터전에서 미래의 혁신으로
- 잠실종합운동장

PLAYground

- 22
- 스포츠 현장 속으로
- 한강을 물들인 푸른 빛 열정!
- 2026 한강수상스포츠 체험
- 28
- 스포츠가 있는 날
- 도심 속 가상 야구 축제
- WBSC Virtual Cup Seoul 2026
- 32
- 서울의 플레이어
- ‘원 팀’이 써 내려갈 새로운 전설
-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 38
- 스포츠 25
- 생활체육으로
- 일상에 건강 더하기
- 노원구체육회
- 40
- 종목 돋보기
- 과녁을 향해 비상하는 활시위
- 서울 궁도의 명맥을 잇다
- 서울특별시궁도협회 오제흥 회장



FAIRground

- 42
- 스포츠와 내일
- ‘보는’ 경기장에서 ‘편집하는’ 경기장으로
- 44
- SSC 챌린지
- 두루미 자세 챌린지로 3초 만에 확인하는
- 상체 근력 및 균형 감각 테스트
- 46
- 운동장 풍경
- 절도 있는 파워와 단단한 협동심으로
- 영신여자고등학교 치어리딩팀 <퀸즈>
- 52
- Play 서울
- 서울시 안의 테니스 명소 4곳
- 56
- SSC 뉴스
- 62
- 숨은 해치를 찾아라!



서울스포츠 웹진



오디오북 듣기



경기장을 채우는 우리들의 합성

“
승리를 염원하며
연대와 위로를

노래하다
”



스포츠 경기장의 열기는 선수들의 가쁜 숨소리와 관중들의 뜨거운 합성이 교차하는 순간에 완성된다. 우리가 경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는 이미 승리를 향한 염원과 서로를 향한 연대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단순한 흥을 돋우는 수단을 넘어 응원가는 한 시대의 역사와 집합적 기억을 담아내는 강력한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한다. 경기장의 합성 뒤에 숨겨진 응원가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들여다본다.

글.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



정윤수는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이며, 2002년 월드컵 전후로 하여 스포츠 칼럼과 축구 해설을 해왔다. 스포츠 인권 향상과 스포츠 도시 실현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장을 채우는 함성, 응원가의 역사와 기억

선수들은 달리고, 관중인 우리는 노래한다.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라면 무엇하러 경기장에 가겠는가. 아, 물론 숨소리조차 억제해야 하는 경기도 있다. 테니스가 대표적이며 탁구, 체조 마루운동, 피겨 스케이팅도 선수들을 위하여 잠시 응원을 자제한다. 그럼에도 그 종목들마저도 플레이가 잠시 멈추면 열렬히 응원한다. 배구의 경우 리시브와 서브, 스파이크에 맞춰 관중들은 ‘하나~두울 셋’을 외친다.

응원가는 더 말해 무엇하랴. 축구나 야구 같은 대규모의 야외 경기 때 우리는 경기장으로 가면서 벌써 노래를 부른다.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나오지도 않았음

에도 부른다. 왜? 누구를 위하여? 응원가는 선수들을 위해 부르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부른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수많은 관중의 응원에 의해 완성된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응원가는 1909년

7월 22일 자 <황성신문>에 실린 ‘야구단운동가’로 보인

다. 이 노래는 ‘소년남자가’라는 제목으로 <대한매일신보> 1909

년 7월 24일 자와 <신한민보> 1912년 2월 15일 자에 실리기도 했다.

근대 음악의 선구자인 홍난파도 1916년에 출간한 『창가집』에 ‘야구전’을 수록하였다. “배팅 들고 썩 나서니 윈스트라이크 다시 한 번 갈겨 보아라, 홈런으로 세컨드야 주의해라 공 굴러간다 어허 홈인이로다”라는 가사다.

그 이후 우리의 스포츠 역사에서 응원가는 역사적인 경기만큼이나 우리의 집합적 기억으로 남아 있다. 본격적으로 스포츠가 국가 정책의 중요 수단이 되고 도시의 일상 문화가 된 1970년대 이후에 ‘3-3-7’ 박수와 ‘아리랑 목동’은 응원문화의 고전이었다. 국가대항전, 대학 라이벌전, 사내 체육대회, 중고교 운동회 등에서 이 노래는 쉼 없이 울려 퍼졌다. 비록 경기 흐름과 때로는 무관하게 응원을 위한 응원이 되기도 했지만 각종 대회에 ‘응원상’이 있었을 정도로 잊을 수 없는 현대사의 집합적 기억이다.

그 정점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손에 손잡고’였고 새로운 변화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오 필승 코리아’다. ‘손에 손잡고’는 국위선양 시대를 대표하며 ‘오 필승 코리아’는 21세기 글로벌 문화를 보여준다. 1990년대 프로축구 문화의 대중화 과정에서 당시 부천을 연고로 했던 부천SK의 서포터스 ‘헤르메스’가 유럽 응원문화를 접목하기 시작했고 1995년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등 여러 PC 통신의 축구 동호회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붉은악마’로 응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오 필승 코리아’가 탄생하였다. 이 곡은 유럽에 널리 퍼진 작자 미상의 노래를 부천 서포터스가 번안하여 응원가로 썼고 이를 붉은악마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 응원가로 개사하였다. 이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음악가 김도영과 강달상이 편곡하여 붉은악마 응원단이 발매한 앨범 ‘꿈☆은 이루어진다’에 수록했다.



“
비록 경기 흐름과 때로는 무관하게
응원을 위한 응원이 되기도 했지만
각종 대회에 ‘응원상’이 있었을 정도로
잊을 수 없는 현대사의 집합적 기억이다.
”

이는 우리의 스포츠가 국위선양에서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표출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이후 국내 프로야구장과 축구장, 그 밖의 여러 경기장에서 종목의 특성과 지역의 역사, 각 선수와 팬들의 개성이 결합된 다양한 응원가가 울려 퍼졌다. 롯데자이언츠의 ‘부산갈매기’와 기아(옛 해태)타이거즈의 ‘목포의 눈물’은 시민의 일상 문화에 현대사가 녹아 있는 경우다.

위로와 연대, 국경을 넘는 응원가의 사회적 의미

다른 나라의 응원가도 같은 맥락이다. 영국 축구를 대표하는 리버풀 클럽의 여러 응원가는 “빅토리아 시대의 찬송가 합창, 이탈리아 축구 팬들이 부르는 노래, 남아메리카 축구 팬들이 외치는 구호와 함성 그

리고 비틀즈 열풍이 차츰 하나로 융합”된 결과이다. 미국의 재즈 찬송가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성자가 행진할 때)은 잉글랜드의 거의 모든 경기장에서 울려 퍼진다. 물론 특정 선수를 위한 응원가도 많다. 당연히 현역 선수 수만큼이나 다양하여 일일이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단 한 곡, ‘위~송~빠레~’는 기억할 만하다. 박지성, 세 글자의 네덜란드 발음이다. 박지성이 PSV 아인트호벤으로 진출했을 때 그곳의 광팬들은 ‘지성(위송), ‘박(빠레)’을 쉬지 않고 외쳤다. 지금 당장 검색해 들어보자.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경기장으로 향한다.

이러한 열광의 노래들 중에서 리버풀의 응원가 ‘You’ll Never Walk Alone’(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은 각별하다. 그 도시가 치른 쓰라린 상처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응원가다. 1989년 영국 노팅엄의 축구장 힐스보로에서 96명의 리버풀 팬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였고 정부와 경찰이 27년 동안이나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 긴 세월 동안 리버풀 팬들과 유족들은 이 노래를 불렀다. 참사 27년 만인 2016년 4월, 영국 법원이 전면 재조사를 결정했고 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사과를 한 후 팬들과 유족들은 ‘You’ll Never Walk Alone’을 또 불렀다. 이 노래는 스코틀랜드와 독일 뮌헨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경기장으로 퍼져 나갔다.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노래다.

일부 국가와 도시의 경우 당장의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응원가가 울려 퍼진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물론 이번 월드컵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모로코의 경우 카사블랑카의 라이벌인 라자AC와 위다드AC의 응원가가 유명하다. 라자의 팬들은 ‘f’bladi Delmouni(나의 조

국에서 나는 핏박당하네)’를 부른다. 위다드 팬들도 강력하고 투쟁적인 응원가를 부른다. 항구 도시 케니트라의 ‘케니트라 AC’ 팬들도 모로코의 정치 상황에 저항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응원가는 스포츠의 일부로, 선수들과 함께 그리고 팬 저마다의 집합적 열광으로 울려 퍼진다.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의 팬들은 주드 벨링엄을 위하여 비틀즈의 명곡 ‘헤이 주드’를 불렀다. ‘Hey Jude, refrain. don't carry the world upon your shoulders(헤이 주드, 세상의 모든 짐을 너 혼자 짊어지지 마.)’ 그 노래를 들으면서 벨링엄은 울먹였다. 그뿐인가. 노르웨이 팬들이 엘링 홀란과 선수들을 위하여 ‘바이킹 로우’를 외쳤고 아르헨티나의 팬들은 메시를 위하여 뜨거운 노래를 불렀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출전국들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침에 따라 ‘골 세리머니 노래’와 ‘승리 축하 노래’를 제출했다. 잉글랜드는 밴드 오아시스의 ‘Wonderwall’을 제출했고 미국은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을 선택했다. 그들은 이 노래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대표팀은 신선한 드럼 비트로 시작하는 밴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제출했다. 아쉽게도 체코전 승리 당시 단 한번 들었지만 가사는 스포츠 응원가로 더없이 아름답다. “솔직히 나보다도 네가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믿어. 오늘을 위해 그저 견뎌줘서 고마워.” 데이식스의 이 노랫말처럼 앞으로 수많은 경기장에서 수많은 선수가 아름다운 경기를 펼칠 것이고 바로 그 옆에서 수많은 팬이 뜨거운 노래로 응원할 것이다.



고전 스포츠 영화와 음악이 예술적으로 만나는 순간

스포츠 영화는 스포츠라는 특성상 달리거나 던지고 차는 등 다이내믹한 장면의 비중이 크다. 여기에 캐릭터마다 개인 서사가 녹아있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주요 장면에 적절한 영화 음악(OST)을 삽입해 감동을 더하게 한다는 점에서 음악은 영화의 특정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 속에 머무르게 한다.

글. 조성진 음악평론가



주인공인 권투선수 로키 발보아(실베스터 스탤론 분)가 시합을 앞두고 훈련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미술관 입구로 이어지는 72개의 돌계단과 거리를 달릴 때, 그리고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 단련하는 장면 등 영화의 여러 대목에서 이 음악이 흐른다. 로키가 달리는 장면을 유심히 보면 주제가의 리듬과 러닝 템포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엔딩 신에서는 이 주제가가 활력과는 다른 모드의 ‘폭풍 감동’을 연출한다. 헤비급 챔피언전에서 무려 15라운드까지 마치고 피투성이가 된 로키가 링에서 애드리언을 애타게 찾는다. 애드리언 또한 많은 관중을 헤치고 링 쪽으로 달려가며 계속 “로키”를 부른다. 바로 이 장면에서 주제곡이 흘러나오며 둘 사이의 사랑의 애뜻함을 더욱 고조시킨다. <로키> 1탄에서 가장 감동적인 하이라이트 신 중 하나다.

1

희열과 사랑을 빚어내는 120 BPM의 울동 〈로키〉의 ‘Gonna Fly Now’

존 아빌드센 감독의 1976년 작 <로키>는 필라델피아 뒷골목 젊은 복서의 위대한 인간 승리를 그린 걸작 스포츠 영화다. 권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일 뿐 아니라, 주제가인 ‘Gonna Fly Now’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일주일간 1위에 오른 빅 히트곡이다. 희열, 영광 등 여러 긍정의 에너지를 솟구치게 하는 음악적 분위기로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빌 콘티가 작곡한 이 주제가는 4분의 4박자, 120BPM의 속도로 경쾌한 펑카·디스코 그루브를 연출한다. 120BPM은 조깅이나 가벼운 운동에 적합한 속도다. 다시 말해 달릴 때의 속도와 보폭에 최적화된 비트인 것이다.

2

불굴의 의지와 초심을 깨우는 록 비트 〈로키 3〉의 ‘Eye of the Tiger’

실베스터 스탤론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로키 3> OST도 ‘Eye of the Tiger’로 유명하다. 미국 록 그룹 서바이버(Survivor)가 부른 이 주제가는 4분의 4박자의 전형적인 록 비트를 띤다. 이 곡은 특히 8분음표 구성의 스타카토 리듬으로 절도와 위용을 더한다. 여기에 강력한 드럼 비트가 마치 시합 중 펀치를 날리는 듯한 효과를 자아낸다. ‘모데라토’에 해당하는 108~109BPM의 템포도 달리는 모션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영화 초반, 새 헤비급 챔피언이 된 로키 발보아가 “애드리언, 내가 해냈어!”라고 외치며 챔피언 벨트를 높이 드는데 이때 나오는 음악이 ‘Eye of the Tiger’다. 이 주제가가 흐르며 첫 방어전 성공 및 연속되

는 장면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로키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한다. 이처럼 ‘Eye of the Tiger’는 에너지 넘치는 기상과 위용을 가진 사운드의 좋은 예다.

영화 중반, 성공의 달콤함에 안주하기 시작한 로키에게 전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칼 워더스 분)가 “우리가 싸울 땐 자네 눈은 호랑이의 눈 같았어. 그걸 되찾아야 해”라며 초심으로 돌아갈 걸 권하고, 로키는 아폴로와 함께 맹훈련에 돌입한다. 이때에도 주제곡이 흐르며 서서히 전투력을 회복해 가는 로키를 잘 표현해 준다. 로키와 아폴로가 비밀리에 링에서 한판 붙는 파이널 신에서도 이 음악이 흐르며 영화가 막을 내린다. 이 주제가는 기상과 위용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3

아날로그 신시사이저가 선사하는 영광의 회상 〈불의 전차〉의 메인 타이틀 ‘Chariots of Fire’

휴 허드슨 감독의 1981년 작 <불의 전차>는 아련한 추억이 된 젊은 날의 영광을 OST로 기막히게 잘 녹여냈다. 육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 영화는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1924년 파리올림픽 육상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룬 에릭 리들과 해럴드 아브라함의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반젤리스’가 음악을 맡아 빌보드 싱글과 앨범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해럴드 아브라함의 삶을 기리는 장례식에서 그의 동료였던 앤드루 린지가 젊은 시절 육상 선수들과 함께 해변을 달리던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불의 전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매우 유명한 장면이다. 바로 이때 주제가가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타이틀과 엔딩 크레딧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음악이 흐른다.

선수들이 달리는 장면이 슬로모션으로 처리될 때 상징적인 에코 효과가 함께 흐르며 젊은 날의 아련한 추억을 더한다. <불의 전차> OST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에코 효과 사운드와 감동의 멜로디는 반젤리스의 야마하 CS-80 신시사이저와 따뜻한 아날로그 테이프 딜레이, 그리고 폭넓은 스튜디오 리버브 효과로 구현된 것이다.

이 OST의 장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곡은 134BPM 속도의 4분의 4박자 중심이다. 134BPM은 음악의 빠르기 기호 중 하나인 ‘알레그로’에 해당한다. 아련한 추억을 환기시키는 신시사이저 방식과 함께 육상이란 스포츠 특성에 맞게 달리는 속도에 최적화된 템포를 적용했다. 앞서 소개한 <로키>가 몸



4

스피드와 한계를 제어하는 사운드 레이스 〈폭풍의 질주〉‘Gimme Some Lovin’

토니 스콧 감독의 1990년 영화 <폭풍의 질주>는 톰 크루즈, 니콜 키드먼, 로버트 듀발 등 당대의 스타들이 총출동한 화제작이다. 영화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가 OST를 맡아 감동을 더했다. 하나의 테마가 일관되게 흐르며 영화적 감동을 끌어올린 앞선 작품들과 다르게 <폭풍의 질주>는 다양한 장르의 여러 OST가 삽입돼 해당 장면마다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데이토나 500’ 레이싱을 앞두고 트랙에서 대기 중인 많은 차와 선수, 스태프를 배경으로 한스 짐머가 작곡한 메인 테마 ‘Days of Thunder’가 흐르며 영화가 시작된다. 이 주제가는 록 스타일의 강렬함과 신시사이저 중심의 웅장한 사운드가 결합된 게 특징이다. 마치 록 음악 특유의 질주감과 스피드, 그리고 거대한 엔진 굉음과 메커니즘 등 제반 요소를 음악에 담아낸 듯한 느낌을 준다.

레이싱카끼리 충돌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1960년대 록의 명곡 중 하나인 ‘Gimme Some Lovin’이 흐른다. 147BPM의 빠른 4분의 4박자가 특징인 곡이라 레이싱의 결 및 스피드감과 잘 어울린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클레어가 시합 중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주인공인 카레이서 콜 트리콜에게 죽음과 싸울 만큼 레이싱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자 “스피드 때문이지. 제어하기 어려운 그 무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이는 카레이싱이라는 스포츠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정의한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스포츠의 세계는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흥분과 감동으로 이끈다. 그리고 그 한계 극복의 순간마다 울려 퍼지는 OST는 스포츠와 음악이 하나로 만나는 가장 눈부신 예술적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조성진은 음악평론가이자 스포츠한국 연예부국장으로 재직 중인 언론인이다. 작가로서 다수의 음악 관련 저작물을 발간하고 있다.



선수와 팬을 잇는 승리의 주문

영국 밴드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는 리버풀 구단의 응원가 ‘You’ll never walk alone’을 경기장에 모인 수만 명의 팬들이 합창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 ‘We will rock you’를 만들었다. 퀸의 팬들이 다른 밴드의 노래가 아닌 퀸의 음악을 통해 축구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만든 ‘We will rock you’는 축구장을 넘어 농구장과 야구장 등 스포츠를 대표하는 응원 음악의 반열에 올라섰다. ‘We will rock you’가 종목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스포츠 응원가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글. 한성윤 KBS 스포츠 기자

스포츠 응원가의 마법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축구장 응원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 팀이 이겼을 때 모든 관중들은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를 따라 부르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다. 잉글랜드가 노르웨이를 꺾고 4강에 진출하자 잉글랜드 팬들과 잉글랜드 대표 선수들이 오아시스(Oasis)의 ‘Wonderwall’을 합창했다. 잉글랜드 승리의 주역인 주드 벨링엄을 위해 비틀즈(The Beatles)의 ‘Hey Jude’를 부르자 벨링엄은 눈시울을 붉혔으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음악은 관중이 선수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선수들은 원정팀의 기세를 압도하는 홈 어드밴티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한계를 넘어서는 강력한 심리적 동력을 얻게 된다.

세계 축구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은 팻 샵 보이스(Pat Sharp Boys)의 ‘Go West’일 것이다. 1대 0으로 이긴 아스널(Arsenal) 팬들이 리듬에 맞춰 ‘One nil~to the arsenal’로 부르면서 시작된 ‘Go West’는 멀리 대한민국에서도 ‘한구~우우우우욱, 한구~우우우우욱’으로 개사해 부를 정도로 유명해졌다. 세계 축구는 서포터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에 유럽에서 인기 있는 음악은 전 세계가 공유한다. 독일 프로축구 샬케 04의 응원가 ‘파랑과 하양이여 영원하라’(Blau und Weiß ein Leben lang)는 이탈리아 축구 인테르 밀란에서도 가사를 바꿔 ‘지도자가 떠나간다’(La capolista se ne va)로 부르며 대한민국 K리그 성남 일화화와 제주 역시 같은 음악을 ‘알레 성남~승리를 향해 달리고’와 ‘알레 알레 알레 제주 FC’로 바꿔 부른다. 샬케 04 응원가의 원곡인 ‘스피드 곤잘레스’는 축구를 넘어 야구에서도 익숙한 곡으로 ‘야야야야 이호준 날려버려라’로 대표되는 과거 SK 이호준의 응원가이자, 지금도 SSG 한동민의 응원가로 야구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응원가를 공유하는 축구 문화는 축구가 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지를 보여준다.

짧고 간결한 농구 응원만의 매력

농구는 실내 경기인데다 경기 진행이 빠른 종목이어서 야구나 축구 같은 긴 호흡의 응원가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대신 DJ 믹스나 음악의 아주 일부분을 활용해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응원을 추구하는데, 이를 통해 찰나의 순간에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선수별 개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오세근이 득점하면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부분 랩이 짧게 등장한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데뷔 이후 계속해서 KBL 정상을 지키는 오세근을 상징하는 음악이다. SK 안영준은 데이즈(D-Note)의 ‘Welcome to the show’의 핵심 부분인 ‘오오오오오’는 ‘SK 안영준’으로 부르는데, KBL 대표 슈터 안영준과 절묘하게 어울린다. 농구 특유의 짧은 응원가는 농구 팬만이 공유하는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작전 타임 시간에 치어리더의 울동에 맞춰 부르는 음악이 시간을 거슬러 역주행하기도 한다. 유정석이 2006년 발표한 ‘질풍 가도’가 대표적이다.

또한 ‘We will rock you’는 두 발을 구르면서 박수치는 동작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곡이 탄생한 1970년대부터 축구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며, 시대와 국가를 뛰어넘어 2026년 경기 내내 서서 응원하는



KBL리그의 응원을 압축하는 동작이기도 하다. 이 노래는 빠르며 강한 데다,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리듬으로 스포츠 응원가의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 복잡한 가사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즉각 따라 할 수 있는 ‘단순성과 반복성’, 경기장 소음을 뚫고 관중을 하나로 묶는 ‘강렬한 리듬’, 그리고 관중을 단순 관객이 아닌 경기의 주체로 변모시키는 ‘직관적 참여성’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 스포츠 응원가의 ‘엘도라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는 음악과 스포츠가 어우러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메이저리그 출신인 롯데지앤츠의 로이스터 전 감독은 ‘부산 팬들의 응원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멋진 장관’이라고 극찬했으며, 허구연 KBO 총재는 야구 해설위원 시절 ‘사직 야구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2만 5천 명의 관중이 신문지를 흔들면서 응원가 ‘부산갈매기’를 부르는 모습은 장엄함을 넘어 전율마저 느끼게 한다. ‘부산 갈매기’는 롯데가 역전한 뒤 부를 때 관중들의 목소리가 가장 커지게 되는데, 이는 응원가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승부처에서 팀 전체의 기세를 폭발시키는 결정적 촉매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야구는 투수 교체와 이닝이 바뀔 때를 비롯해 흐름이 끊기는 순간이 많이 발생한다. 이때 끊어지는 경기 흐름 속에서도 관중의 몰입도를 유지시키는 장치로서 응원가 문화가 가장 발달한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을 ‘롯데의 강민호~’로 개사한 강민호 응원가에서 보듯, 팀을 옮기면 응원가도 바꾸는 경우가 많지만, 홈런왕 박병호처럼 현역 생활 동안 같은 응원가를 사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독일 굴베이 댄스(Dance) 밴드의 음악 ‘엘도라도’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삼성 왕조의 전성기와 함께 한 음악이다. 저작권 사태로 ‘엘도라도’를 부를 수 없던 시절 삼성은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엘도라도’를 부르게 된 이후 삼성은 거짓말처럼 부활했다. 삼성 팬들에게 ‘엘도라도’는 단순한 음악 이상의, 팀의 정체성을 집대성하고 경기장의 집단적 에너지를 극대화하여 승리를 부르는 마법의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프로야구 역시 선수별 응원가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외야 서포터스만이 부르는 관계로 KBO리그처럼 모든 관중이 선수 응원가를 열창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KBO리그에서 음악은 20~30대 젊은 야구 팬의 열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착되었다.

이렇듯 응원가는 관중의 몰입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선수와 팬 사이에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승리에 대한 집단적 열망을 공유하게 한다. 위대한 응원가는 단순한 배경 음악을 넘어 스포츠를 빛내는 주역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이다.

한성윤은 1997년 KBS 스포츠 기자로 입사한 후, KBS 뉴스와 KBS N 스포츠 방송, 일본 프로야구 해설 및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잡스’ 진행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 왔다.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강 체육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인생은 오타니처럼』, 『야구장의 피아노 맨』 등이 있다.

김세훈은 1999년부터 스포츠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다. 축구, 야구, 골프, 배구, 농구 등 프로종목을 비롯해 다양한 아마추어 종목을 경험했고 월드컵축구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도 현장 취재했다. 지금은 학교체육, 국가체육정책, 여성들의 스포츠참여, 스포츠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쓰고 있다.

학교 운동장의 적막 ...

과도한 민원과 책임에 위축되는 체육 교육

학교 운동장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 승패를 가리는 대신 무승부로 처리하고, 뛰고 부딪히는 체육활동은 줄어들며, 교사들은 사고 발생 자체보다 그 이후 이어지는 민원과 책임 추궁을 더 두려워한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변화가 어느새 아이들의 성장 기회와 교사의 교육활동까지 함께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글. 김세훈 경향신문 스포츠부 기자

승패를 지운다고 ‘패배’가 사라질까

일부 학교는 달리기와 줄다리기 결과로 벌어진 청팀과 백팀 점수 차이를 ‘응원 점수’와 ‘질서 점수’로 매워 무승부를 만든다. 달리기 등수를 표시한 도장도 없었다. “아이가 지고 돌아와 속상해한다. 패배감을 주지 말라”는 학부모 민원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소음 민원도 잇따른다. “시끄럽다”는 신고가 접수돼 순찰차가 운동장에 출동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는 350건이었고, 이 가운데 345건에 경찰이 실제 출동했다. 운동회를 열기 전에 이웃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과문부터 학교 담벼락에 붙이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학부모들의 상충하는 요구도 교사를 난감하게 한다. “아이가 땀을 많이 흘리니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 달라”는 요구와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찬바람을 쐬게 하지 말라”는 요구가 동시에 들어온다. 학교는 서로 충돌하는

요구 사이에서 가장 민원이 적은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다. 학생이 공에 맞거나 넘어져 다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보상하더라도 사고 경위 확인과 민원 응대, 감사 요구, 형사 고소 가능성은 교사가 떠안는다. 축구와 농구, 피구, 높이뛰기, 허들 대신 걷기와 스트레칭, 보드게임 등을 선택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모두 참여하는 축제형 운동회도 충분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경쟁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승패를 없애는 것과 민원을 피하려고 실제 경기 결과를 무승부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이들은 경쟁을 통해 이기는 법만 배우지 않는다. 규칙을 지키는 법, 자신보다 잘하는 친구를 인정하는 법, 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박수를 보내는 법을 배운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는 경험도 얻는다. 패배의 충격을 없애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작은 실패를 안전하게 경험하고 그 감정을 견디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에 가깝다.

교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고 그 이후

학교 체육이 위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자체보다 사고 뒤에 이어지는 책임 추궁이다. 한 체육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처리해줘도 교사들은 직후부터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과 사후 대응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체육수업을 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시대”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나 농구도 경기가 조금 격렬해지면 충돌 사고가 날까 노심초사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교안전사고 20만 592건 가운데 체육활동 중 사고는 7만 5,475건으로 37.6%를 차지했다. 체육은 본질적으로 움직이고, 달리고, 부딪히며 배우는 교육이다.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어

도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다.

체육교사들이 반복해서 지적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안전 파손이다. 축구나 농구 경기 중 안경이 부서지는 일은 흔하지만, 신체 부상과 달리 안경이나 옷, 휴대폰 등은 공제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교사가 학부모 사이에서 중재와 민원 대응까지 감당하게 된다.

현장을 지키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체육교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안전교육과 시설 점검, 준비운동과 학생 상태 확인 등 교사가 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는데도 발생한 우발적 사고까지 교사 개인의 과실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25년 개정을 통해 학교장과 교직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무엇을 ‘안전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 수업 전 안전수칙을 어느 정도 설명해야 하는지, 학생 수에 따른 보조 인력 기준은 무엇인지, 축구 경기에서 어느 수준의 접촉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없다.

정부와 교육청은 종목별·상황별 표준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가 이를 준수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의 법률지원단과 분쟁조정기가 즉시 개입하고, 학교도 승인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자가 “담당 교사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물러서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반대로 교사 역시 제도적 보호만 요구할 수는 없다. 수업 전 안전교육과 위험요소 점검을 충실히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표준 매뉴얼은 교사

를 통제하는 문서가 아니라 제대로 수업한 교사를 보호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아이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

학교는 한 아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한 학생이 경기에서 졌다고 승패를 없애고, 한 번 다쳤다고 종목을 폐지하며, 한 가구가 시끄럽다고 운동회를 실내로 옮긴다면 다른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 학교도 사고 경위와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학부모 역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책임자를 찾기보다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도 학교를 소음과 불편만 유발하는 시설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과거 학교 운동장은 주민들과 함께 쓰던 공동체 공간이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함성과 운동회가 공동체 문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안전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아이들은 도전할 기회를 잃는다. 달리다 넘어질 수 있으니 달리지 않고, 부딪힐 수 있으니 공놀이를 하지 않으며, 질 수 있으니 승부를 가리지 않는 학교가 과연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학교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경험하고 실패와 부상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패배와 부상을 없애주는 학교가 아니라, 안전하게 도전하고 정당하게 경쟁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학교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를 뛰어넘은 뜨거운 포옹

이상화 VS 고다이라 나오

이상화	고다이라 나오
성장 스타일	
10대 시절부터 세계를 제패한 천재형	30대에 전성기를 맞이한 대기만성형
레이스 강점	
압도적인 파워를 바탕으로 한 폭발적인 초반 100m 스타트	철저한 메커니즘 분석으로 완성된 후반 스피드 유지력
올림픽 최고 성적	
금메달 2개 (2010 밴쿠버 500m, 2014 소치 500m), 은메달 1개 (2018 평창 500m)	금메달 1개 (2018 평창 500m), 은메달 1개 (2018 평창 1000m)
전성기	
2010년대 초·중반 (2013년 세계신기록 수립)	2010년대 후반 (2016~2018년 국제대회 24연승)
기록	
36초 36 (여자 500m 세계 최고 기록 보유)	36초 47 (여자 500m 역대 2위 기록 보유)
은퇴 후 행보	
방송 활동 및 해설위원, 후배 양성 활동	모교 대학 특임교수 임용 및 지역 스포츠 활동

스피드스케이팅 역사상 이토록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라이벌이 또 있었을까. 대한민국의 ‘빙속 여제’ 이상화와 일본의 ‘대기만성형 철인’ 고다이라 나오. 두 선수가 빙판 위에서 펼쳐낸 10여 년의 레이스는 단순한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과정과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서로가 있었기에 빙판 위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두 사람의 라이벌 대전을 돌아본다.

글. 편집실

천재의 독주와 대기만성의 추격

두 선수의 이력은 시작부터 달랐다. 이상화는 10대 시절부터 세계 무대를 평정한 타고난 천재였다. 강력한 스쿼트 훈련으로 다져진 압도적인 허벅지 근력과 폭발적인 스타트를 앞세워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2013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세운 36초 36의 500m 세계기록은 12년 동안 깨지지 않는 대기록이었다.

반면 고다이라는 꾸준한 노력으로 뒤늦게 빛을 발한 대기만성형 선수였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보기 드문 20대 후반의 나이에 네덜란드로 홀로 유학을 떠났고, 스케이팅 날의 위치부터 스케이팅 자세까지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새로 고쳤다. 낮에는 스케이팅을 타고 밤에는 해부학 책을 펼치며 자신의 신체 구조에 맞는 주법을 연구한 끝에 서른을 넘긴 나이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평창으로 향하는 길목, 얼음 위에서 나눈 비밀

국경을 넘어서 두 사람의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국제 대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은 국내외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곤 했다.

두 선수의 끈끈한 우정은 경기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잘 드러났다. 고다이라는 “상화는 항상 친절하다”며 과거의 일화를 소개했다. “몇 년 전 서울 월드컵 당시 제가 우승하고 서둘러 공항으로 가야 했는데, 상화가 링크장에서 공항까지 갈 택시를 불러주고 요금까지 직접 내줬다”며 “본인 결과에 아쉬웠을 상황에서도 나를 배려해 주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이상화는 “나오와 레이스를 치르며 기분 나빴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화답했다. 이어 “택시 요금은 확실히 내가 냈다”고 재치 있게 덧붙여 회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의 장면

두 사람의 라이벌 서사가 정점에 달한 순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당시 이상화 선수는 무릎 슬개건염과 하지정맥류 부상으로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도 올림픽 3연패라는 부담감을 안고 은반 위에 섰다. 고다이라는 월드컵 15회 연속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세계 최강자의 타이틀을 쥔 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 들어섰다.

경기 결과 고다이라 선수가 36초 94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상화 선수는 37초 33의 값진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레이스가 끝난 뒤, 그동안 참아왔던 신체적 통증과 홈 관중의 뜨거운 응원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상화에게 고다이라가 다가갔다. 고다이라는 이상화 선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한국어로 “수고했어”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이때 고다이라는 이상화에게 “나는 여전히 너를 존경한다”는 말을 건넸고, 이상화 역시 “멋진 레이스를 보여주고 나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주어 고맙다”고 답했다.

서로의 힘든 훈련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동반자이자 라이벌만이 나눌 수 있는 진심 어린 위로였다. 이 포옹 장면은 국경을 넘은 우정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평창 올림픽 최고의 명 장면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빙상장을 녹인 국경 없는 우정

이들의 우정은 트랙 밖에서도 계속되었다. 서로 다른 국적과 역사적 긴장감 속에서도 두 사람은 늘 서로를 존중했다. 이상화는 평소 고다이라를 향해 “나의 성장을 이끌어준 최고의 경쟁자”라며 경의를 표했고, 고다이라는 “상화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은퇴 이후에도 이어졌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방송사 해설위원으로 참여한 이상화가 고다이라 선수의 경기를 중계하며 눈물을 흘린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고다이라는 발목 부상 여파로 500m 17위에 머물렀고, 이상화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마음이 느껴진다”며 눈물을 흘렸다. 소식을 접한 고다이라는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한국어로 “상화, 울지 마”라며 위로를 건넸다.

승부의 세계에서 싹튼 두 사람의 우정은 승패를 넘어서 스포츠의 참된 가치를 보여준 아름다운 사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끝난 뒤 함께 트랙을 도는 이상화와 고다이라 나오



©sanghwaz



영광의 터전에서 미래의 혁신으로

잠실종합운동장

대한민국 스포츠의 상징이자 현대사의 중심이었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서울특별시와 기존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이 일대를 초대형 '스포츠·MICE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 편집실 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킨텍스 제공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지

잠실의 역사와 상징성

1980년대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결정적 발판이 되었던 잠실종합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시설을 넘어 우리 현대사의 중심 공간이다. 1984년 완공 이후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황금기를 일구어낸 역사적 성지이자 국민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주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관중들의 열기와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러낸 경험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잠실종합운동장은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대형 공연이 펼쳐지는 중심지로서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 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잠실이 품어온 수많은 역사적 순간들은 지금도 국민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1988년 9월 17일 올림픽 개회식 당시 잔디 그라운드

잠실 MICE 복합단지 조감도



위를 홀로 질주하던 ‘굴렁쇠 소년’의 정적과 이어 울려 퍼진 그룹 코리 아나의 ‘손에 손잡고’는 전 세계 10억 관중의 가슴을 울린 잠실 최고의 명장면이었다. 어디 이뿐인가. 야구 팬들에게 잠실야구장 최고의 명승부로 남아 있는 1984년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롯데 자이언츠의故 최동원 투수가 홀로 4승을 올리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기적 같은 순간 역시 바로 이곳에서 펼쳐졌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역사에서도 잠실은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1996년 10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첫 내한 공연을 펼치며 한국 대형 대중문화 공연의 포문을 열었고, 이후 BTS를 비롯한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거쳐 가며 잠실주경기장은 K-POP과 대중문화의 성지라는 또 하나의 무형적 자산을 쌓아 올려 왔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추진

오랜 세월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변화 중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코엑스와 연계하여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초대형 ‘스포츠·MICE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모은 용어로, 대형 행사와 관광을 연계한 복합 산업을 의미한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발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39층 규모의 현대식 컨벤션 시설과 약 3만 석 규모의 국내 최대 최첨단 돔구장, 다목적 스포츠 콤플렉스, 호텔 및 상업시설 등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서울을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관광·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미래형 도시경제 전략의 핵심 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킨텍스가 향후 40년간의 운영권을 최종 확보함에 따라, 2026년 착공 후 2032년 준공을 거쳐 시설 개관 및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30년간의 전시장 운영 노하우를 갖춘 킨텍스의 참여로 잠실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MICE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한편, 고양 킨텍스 본장과 연계한 수도권 MICE 벨트 구축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공사 모습 (1984)

“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잠실종합운동장은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대형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중심지로서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 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아 왔다.
”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개장식 (1984)



↑ 잠실 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 잠실 MICE 복합단지 조감도

체육 유산의 가치와 미래적 과제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 복합단지 개발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체육 유산의 무형적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중요한 과제다. 이에 서울시는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잠실 주경기장의 역사성과 외관 상징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혁신 기술을 조화롭게 공존시키고자 하는 디자인 전략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깊은 시사점을 지닌다.

특히 최근까지도 내한 공연과 글로벌 K-POP 아티스트의 초대형 콘서트, 그리고 프로야구 및 주요 경기들이 끊임없이 열리며 잠실은 여전히 살아있는 문화·스포츠의 열기 속에서 수많은 시민과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왔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동안 대체 경기장 확보 및 공연 문화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향후 완공될 최첨단 돔구장과 멀티플렉스 시설이 기존 잠실이 축적해 온 상징성을 어떻게 새로운 경험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가가 미래의 핵심 논의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역사적 영광과 근현대 스포츠 성지로서의 스토리텔링 자산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으면서, 새롭게 신설될 보행 네트워크 및 한강 수변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고층 빌딩이 들어서더라도, 그 땅이 품고 있는 뜨거웠던 성장의 기억과 체육 유산 자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든든하게 지탱할 가장 강력한 무형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MICE 복합단지	
1976년 착공 1984년 완공	착공·완공	2026년 착공 2032년 준공 예정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의 발상지 및 88 올림픽 메인무대	핵심 기능	국제 수준의 MICE 클러스터 및 첨단 스포츠·문화 엔터테인먼트 거점
주경기장, 오픈형 야구장, 학생체육관, 수영장 등	주요 시설	주경기장(리모델링), 3만 석 규모 돔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전시, 컨벤션, 5성급 호텔
아시안게임 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가 주도 체육 시설단지	도시 맥락	코엑스~GBC~잠실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 보행 네트워크
한국 스포츠 근대화와 메가 이벤트 성공의 역사적 성지	역사적 의의	올림픽 유산을 품은 새로운 도시 브랜드 및 미래형 복합문화 공간

2026 한강수상스포츠 체험

한강을 물들인



시원한 한강 물결 위에서 카약에 올라 자유롭게 물살을 가르며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시민들

푸른 빛 열정!



체계적인 지도 아래 참가자들에게 안전 수칙과 수상스포츠 기초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전문 강사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시민들이 도심 속 한강에서 다채로운 수상 레포츠를 안전하고 활기차게 즐길 수 있도록 '2026 한강수상스포츠 체험 사업'을 개최했습니다. 양화해양스포츠훈련장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카약, 패들보드(SUP), 요트, 모터보트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전문 강사진의 안전 교육과 실습을 거쳐 한강의 시원한 물살을 가르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즐거움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 밀착형 스포츠 체험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과 사진. 서승환



강사의 세심한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며
패들보드 위 중심 잡기와 패들링 동작을
익히는 참가자

#패들보드 #여름한가



도심 빌딩 숲을 배경으로 바람을 안고
한강 항해를 준비하는 단정하고 웅장한
요트의 모습

#한강액티비티 #수상레저





호흡을 맞춰 힘차게 노를 저으며 한강 위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는 카약 참가자들



#모터보트 #수상스포츠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한강을 질주하는 모터보트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시민들



#요트체험 #여유로인주말



도심 속 가상 야구 축제

세계 각국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강의 가상 야구 왕좌를 가린 국제 e스포츠 대회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후원으로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주최한 'WBSC Virtual Cup Seoul 2026'이 지난 6월 예선전을 시작으로 8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열린 본선과 결승전을 끝으로 열렬한 환호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글. 심정윤 사진. 서울특별시체육회

WBSC Virtual Cup Seoul 2026 개최



대한민국 야구 레전드 박용택, 유희관 선수와 함께 이벤트에 참여해 상품을 받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범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이 개회식 터치버튼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대회 우승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Defending Champion 팀의 김환화·이청용 선수가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
장충체육관 본선 무대에 진출한 아마추어 동호인과
프로 출신 선수들은 WBSC 공인 규정인 정규 6이닝제
아래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명경기를 선보였다.
”

준우승을 차지한 HMDtrio 팀의 조영남·김지후 선수가 결승전에서 콘솔을 조작하며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서로의 유니폼에
사인을 남기며 우정을 나누고 있다



스포츠 트렌드 바꾼 WBSC

스크린 타고 장충체육관을 뜨겁게 달구다

세계 야구와 소프트볼을 총괄하는 WBSC가 첨단 기술과 결합한 가상 야구 대회를 진행했다. 최근 골프, 야구 등 스크린 스포츠의 대중화와 e스포츠 확산 트렌드에 발맞추어, WBSC는 공인 국제 e스포츠 대회를 창설해 스포츠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스크린야구는 타석으로 날아오는 공을 타자가 타격하면 고정밀 센서와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이 타구의 속도·각도 등을 즉시 계산하여 안타, 홈런, 아웃 등의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해 승패를 겨루는 가상 스포츠다.

이 대회의 본선 토너먼트 및 결승전이 지난 8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스크린을 활용해 생활체육형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입증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트렌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증명해 냈다.

스크린야구가 만든 ‘글로벌 명경기’

본선 무대에 오르기까지 전 세계 팬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00여 개 스트라이크존 매장과 해외 지정 장소에서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졌다. 이를 바탕으로 선발된 우수 팀과 WBSC 7개 회원국(미국,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태국, 벨기에) 예선

1위 팀 등 총 8개국 12,000여 명의 참가자가 본선행 티켓을 놓고 맞붙었다.

장충체육관 본선 무대에 진출한 아마추어 동호인과 프로 출신 선수들은 WBSC 공인 규정인 정규 6이닝제 아래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명경기를 선보였다. 특히 고정밀 비전 센서를 활용한 자동 판정 시스템이 도입되어 판정 논란 없는 공정성과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제공했으며, 이는 관중과 선수 모두에게 스크린야구만의 매력을 각인시켰다. 총 8개국 12개 팀이 치열한 명승부를 펼친 끝에 전년도 챔피언인 김환화·김청용(Defending Champion)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며 왕좌를 지켜냈고, 조영남·김지후(HMDtrio)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e스포츠 축제

대회가 진행된 양일간 장충체육관 일대는 첨단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체육관 외부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가상 야구를 직접 체험해 보는 ‘스크린야구 체험존’과 ‘글로벌 푸드존’이 운영돼 호응을 얻었으며, 메인 무대에서는 참가국 간 스포츠 매너 공유와 서울시 홍보 콘텐츠 상영 등 다채로운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아울러 해외 선수단 전문 통역·수송 지원, VIP·미디어 라운지 운영과 함께 휠체어 관람석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국제대회에 맞춘 편리한 접근성과 운영체계를 선보였다.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의
뜨거운 훈련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원 팀’이 써 내려갈 새로운 전설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묵직한 공 소리와 함께 코트를 가로지르는 발걸음마다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선수들의 진지한 눈빛이 빛난다. 창단 이후 전승 행진을 달리며 실업팀 농구의 강자로 올라선 이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쉼 없이 코트를 누비며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글. 심정윤 사진. 박성수 영상. 이덕재



코트 위에서 다시 피어난 열정 서대문 전성시대를 열다

지난 2023년 3월 공식 창단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은 국내 여자 실업농구팀 가운데 네 번째로 창단한 팀이다. 창단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으나 서대문구청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당당히 코트에 첫발을 내 디뎠다. 프로 무대에서 부상이나 조기 은퇴했던 선수들도 함께 모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창단 2년 차부터 전승 행진을 이어가며 각종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고, 명실상부한 실업 농구의 강호로 자리매김했다. 보통 새 지도자와 선수가 만날 경우 정상에 오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박찬숙 감독의 지도 아래 서대문구청 농구단은 빠르게 '서대문 전성시대'를 열었다.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서대문구청과 감독, 선수단 전체가 하나로 뭉친 '우리는 원팀(One Team)'이라는 슬로건에 있다.

박찬숙 감독은 농구단의 성장 배경에 대해 "프로에서 낙오되거나 부상 등으로 아쉬움을 삼켰던 선수들을 스카우트해 모았다"며 "상처를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휘해 준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선수들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과 함께 "구단과 지도자,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단단한 팀워크를 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단단한 결속력 속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농구의 매력은 특별하다. 코트 위에서 오직 팀워크와 강인한 체력으로 승부를 겨루는 순간의 희열은 농구의 고유한 매력이다. 주장 윤나리 선수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 훈련의 큰 동력"이라며 "코트 안팎에서 동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팀을 단단하

게 이끌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프로팀 출신의 유현이 선수는 "부상 등으로 농구를 그만두려다 마지막으로 악바리 있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합류했다"며 "힘들어도 다 함께 단합해서 이겨내는 농구의 매력 덕분에 지금까지 코트를 누비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 1점을 위한 고강도 훈련

코트 위에 쏟아붓는 땀방울

농구는 40분 내내 끊임없이 코트를 왕복하며 공수 전환을 이어가는 극한의 스포츠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은 고강도 훈련 루틴을 소화한다. 오전에 체력 훈련과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3시간가량 전적으로 실전 연습 경기에 집중한다. 몸이 기억해 자동으로 반응할 때까지 기술과 반복 훈련을 이어가는 것이 이들의 일상인 것이다.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재활을 전담하는 송혜련 트레이너는 "올해 1월에 합류해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의무 파트를 함께 맡고 있다"며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목 테이핑부터 컨디션 체크까지 세심하게 케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단과 지도자,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단단한 팀워크를 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

”



캡션





실전 연습 경기는 3대3, 4대4 반코트 경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11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하는 촘촘한 경기 운영 속에서 선수들은 포지션을 넘나들며 멀티 플레이어로서의 역량을 끌어올린다. 시합 중간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강도 훈련을 이겨내는 선수들의 표정에는 각오가 서려 있다.

올해 새롭게 합류한 이수하 선수는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 농구를 하고 싶어 입단하게 됐다”며 “고강도 훈련을 이겨내며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단한 지 4개월 된 최민주 선수 역시 “팀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며 “언니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큰 자산이 된다”고 덧붙혔다.

수평적 존중과 신뢰

전국체전 3연패를 향한 포부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의 또 다른 무기는 코트 밖에서의 수평적인 소통이다. 지도자와 선수 간의 존중이 바탕에 깔려 있기에 코트 안에서의 엄격한 지도도 신뢰로 연결된다. 코트 밖에서는 선수들을 ‘공주님’ 처럼 대하고 엄마처럼 포용한다는 박찬숙 감독의 리더십은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지도 철학에 대해 박찬숙 감독은 “코트 안에서는 제 시야에서 벗어나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지도하지만, 훈련 시간 외에는 편안하게 대한다”며 “선수들을 존중해야 감독도 대접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수들에게 ‘너희도 레전드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박 감독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수단은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향한 집념을 드러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일반부 ‘3연패’라는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금 결연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주장 윤나리 선수는 “당연히 이번 전국체전 금메달이 목표”라며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해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 여러분께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수하, 최민주 선수 역시 “남은 전국체전에서 다 같이 한마음으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파이팅!”을 외쳤다.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간절한 노력으로 똘똘 뭉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코트 위를 가르는 이들의 뜨거운 패스와 슛은 이미 하나의 완벽한 호흡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전국체전 무대에서 이들이 써 내려갈 또 하나의 전설과 눈부신 영광의 순간을 기대해 본다.

서울의 플레이어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박찬숙 감독



박찬숙 감독이 이끄는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은 선수들과의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강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윤나리(주장), 유현이, 임현지, 이소정, 양유정, 박은서, 박성은, 이수하, 최민주 등 총 9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체전 3연패를 목표로 맹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생활체육으로 일상에 건강 더하기 노원구체육회

어르신들의 활기가 넘치는 공원 헬스장부터 군인들의 바른 자세를 지도하는 스트레칭 교실까지, 노원구체육회의 발걸음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향해 있다. 체육을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경기가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일상 속 복지’로 바라보는 노원구체육회. 어르신과 유소년, 지도자와 동호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도시 노원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노원구체육회의 오늘을 조명한다.

글. 심정윤 사진. 이재형



구민 가까이에서 펼치는 생활체육 네트워크

노원구체육회는 구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체육의 중심축이다. 현재 수많은 회원종목단체와 동체육회가 긴밀히 협력해 구민 체육대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체육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육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 노원구체육회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노원’을 목표로 소통과 화합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이귀한 회장의 운영 철학 역시 눈에 띈다. 스포츠가 지도자와 행정, 시설이 어우러질 때 결실을 본다는 점을 잘 아는 이 회장은 동네 공원의 야외 헬스장이나 지역 내 육군 부대 등 구민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동하는 현장을 직

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자치구체육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행정 기틀과 구성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수로 꼽힌다. 이귀한 회장은 20년 차 베테랑과 신입 직원의 기본급 격차가 거의 없는 현 구조를 지적하며, 임기 내 지도자 및 직원들의 호봉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젊은 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구민 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맞춤형 체육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노원구체육회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파크골프나 체조는 물론, 손쉬운 공놀이와 바른 자세 걷기 프로그램 등을 다각도로 구상하며 어르신 체육 프로그램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현장 밀착형 공익 사업도 호평 받고 있다. 주민들이 공원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지도자가 직접 찾아가는 ‘공원 헬스장 올바른 운동법 지도’나 ‘아침체조 교실’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관내 육군 부대를 방

문해 장병 수백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칭과 바른 걷기 교육을 진행해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 회장은 과거 테니스협회장 재임 시절, 지역 내 급증하는 고령 테니스 인구의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원구 시니어

테니스대회’를 직접 창설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자치구 단위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어르신 전용 대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고령층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회장 취임 이후로 각종 예산 지원 사업과 연계되며, 현재 전국 각지에서 동호인이 찾아오는 노원구의 대표 시니어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다.

계절적 여건을 고려한 행사 기획도 돋보인다. 야외 활동에 적합한 봄철에 구민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노원구민체육대회를 4월로 조정해 개최하는 등 구민 중심의 체육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를 구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로 만들어가는 노원구체육회와 이귀한 회장의 정직한 행보가 노원구 전체를 건강한 에너지로 물들이고 있다.

mini interview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노원

이귀한 회장



노원구에서 오랜 기간 구민들과 함께 호흡해 왔기에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 체육 환경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육 회장은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과 연결하는 가교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시니어 체육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과녁을 향해 비상하는 활시위

서울특별시궁도협회
오제흥 회장서울 궁도의
명맥을
잇다

바람의 결을 읽고 스스로를 낮추며 예의를 먼저 배우는 우리 민족의 전통 무예인 궁도. 사대에서 145m 떨어진 과녁을 향해 당기는 활시위에는 단순한 명중 이상의 정신이 담겨 있다. 서울특별시궁도협회를 이끄는 오제흥 회장은 전통 활쏘기의 매력을 보존하면서 서울 시내 활터 확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하다.

글. 심정윤 사진. 이재형

Q1 회장님께서 궁도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와 서울특별시궁도협회 회장직을 맡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릴 적 동네 어른들이 한복에 토시를 차고 활터에서 활을 내며 막 걸리 한 잔을 기울이던 편사 놀이 문화를 보며 자랐습니다. 이후 친한 친구 아버님이 남산 석호정에서 활을 내신다(활을 쏜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가 본격적으로 궁도에 입문해 어느덧 25년 동안 궁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석호정 총무와 협회 이사, 부회장직을 거친 뒤 궁도협회장에 취임해 현재 연임 중입니다. 활터에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봉사정신이 자연스럽게 서울시 궁도 행정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Q2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궁도의 매력과 가치는 무엇인가요?

궁도(국궁)는 기능자나 조준경 같은 장치 없이 오롯이 자신의 감각과 바람을 느끼면서 과녁을 맞혀야 합니다. 특히 무소뿔과 민어 부레풀, 대나무 등으로 만든 전통 '각궁(角弓)'과 대나무 화살인 '죽시(竹矢)'는 기온과 습도에 민감합니다. 여름에는 활의 장력이 약해지고 겨울에는 세지기 때문에, 공사는 과녁 쪽에서 불어오는 '오늬바람'이나 뒤에서 불어오는 '촉바람' 등 미세한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읽어내어 활을 쏘아야 하는 점이 국궁의 매력입니다. 무엇보다 인애덕행(仁愛德行)을 으뜸으로 두는 '궁도구계훈(弓道九戒訓)'에서 알 수 있듯, 활이 맞지 않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반구재기(反求諸己)'의 자세야말로 궁도가 주는 최고의 정신 수양의 가치입니다.

Q3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궁도 교육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근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궁도 교실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국궁 입문자의 경우 자신의 체형과 힘에 맞는 활을 선택하고, 과녁 거리를 30m나 50m로 줄여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광화문에서 열리는 신흥무관학교 체험 행사 처럼 화살이 떨어지지 않게 활에 지지대를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활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도 길게 줄을 서서 즐길 정도죠. 학생들이 활쏘기를 배우면 학부모까지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활터로 찾아오면서 젊은 층과 여성 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서울시 궁도 인구 저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4 다가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서울시 대표팀의 준비 상황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체전에서도 상위 10위권 진입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궁도는 실업팀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큰 배점이 걸려 있는 중요 종목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궁도 실업팀은 없는 상황이지만, 협회 회원진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선수들에게 여러 지원을 해주며 대회 준비를 위해 단단한 팀워크를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어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실업팀 창단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Q5 서울시 궁도 저변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서울 시내 전용 국궁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중대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국궁 사대에서 과녁까지의 거리인 145m를 확보하려면 최소 4천 평(약 1만 3223㎡) 규모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조선 말기 한양 도성에만 백호정, 청룡정 등 27개의 민간 사정(射亭, 활터)이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 서울 시내 등록 활터는 황학정, 석호정, 살곶이정 등 총 8곳에 불과합니다. 각 활터마다 회원 수가 150여 명을 넘어서며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 및 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아차산, 난지공원 등 사유지를 활용한 활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유서 깊은 호국 무예를 보존하기 위해 활터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Q6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와 서울시 궁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임기 내 서울시 대표팀의 실업팀 창단 기반을 다지고,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어 선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또한, 심판 강습회를 정례화하여 1~3급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 심판(시판)을 대거 양성함으로써 각종 대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과녁 옆 막사에서 '관중(貫中)' 여부를 판별해 깃발을 돌려주는 '시동(侍童)'이 그랬듯, 원칙을 지키는 모범적인 경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궁도는 단순히 화살을 멀리 보내는 스포츠가 아니라 예의와 덕을 갖추는 무예입니다. 서울의 모든 궁도인들이 '인애덕행'의 가치를 품고 화합하는 모범적인 종목으로 이어져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는’ 경기장에서 ‘편집하는’ 경기장으로

스마트 경기장은 단순히 초고속 통신망과 대형 전광판을 갖춘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람객이 원하는 화면과 정보를 직접 선택하며, 현장의 경기를 자신만의 콘텐츠로 재구성할 수 있을 때 경기장은 비로소 ‘스마트’해진다. 이러한 기술은 경기장의 시설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관람하는 팬의 행동과 역할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글. 이준성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교수



이준성은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교수이다. 스포츠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스포츠 소비자들의 심리와 행동, 스포츠 미디어 소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소비가 소비자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동상이몽: 같은 경기, 서로 다른 시야

농구 경기장을 찾은 한 가족을 떠올려 보자. 부모는 코트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자녀는 자신이 응원하는 허용 선수의 표정과 슈팅 동작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한다. 과거에는 모두가 경기장 전광판이나 중계 제작자가 선택한 화면을 함께 봐야 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 KCC 이지스의 홈경기장 가족석에 설치된 카메라 조종 시스템과 화면은 관람객이 경기장에서 접할 수 있는 시선을 더욱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람’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지켜보는 수동적 행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초고속 통신망, 다중 카메라,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이 결합하면서 스포츠 관람은 선택과 조작을 포함하는 능동적 소비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선수를 따라갈지 어떤 각도에서 플레이를 볼지, 어느 순간을 다시 확인할 것인지를 관람객이 직접 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장 관람과 가정 내 중계 시청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2024년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미국 스포츠 팬의 58%(MZ세대 약 70%)는 경기장에서도 중계처럼 통계 및 분석과 리플레이 이용을 원했다. 아울러 관람객 82%가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쓰는 가운데, 68%는 다각도 경기 장면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는 스마트 경기장 기술이 달라진 관람객의 행동과 요구에 대응하는 핵심 서비스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와 즐거움: 확장되는 현장 관람 경험

스마트 경기장의 또 다른 변화는 경기장 안의 선수와 공의 움직임이 실시간 데이터와 결합한다는 점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스탯캐스트(Statcast)는 카메라와 추적 시스템을 통해 투구, 타구, 주루와 수비 움직임을 데이터로 전환한다.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는 타구 속도, 발사각도, 투구 궤적과 선수의 이동 경로를 시각화하여 경기장 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팬들이 경기를 더욱 깊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관람 콘텐츠가 되고 있다.

나아가 증강현실(AR) 기술은 경기 공간 위에 가상 캐릭터나 디지털 그래픽을 겹쳐 보여주며, 팬들이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체험하도록 돕는다. LA Rams는 SoFi 스타디움에서 AR을 활용해 경기장 위에 거대한 디지털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팬들이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팬은 더 이상 방송사가 선택한 하나의 화면을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시선에 따라 경기와 콘텐츠를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관중: 경기 가치의 공동생산자

과거 SK와이브스(현 SSG 랜더스)가 도입했던 4D 리플레이 전광판 역시 이러한 스마트한 경기장으로의 변모의 흐름을 보여주는 국내 사례라 할 수 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을 연결해 특정 플레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여주는 이 시스템은 관중이 하나의 시선에 머무르지 않고 장면을 다각도로 이해하도록 돕는

다. 같은 홈런이라도 외야 관중, 포수, 타자 또는 상공에 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장면과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팬들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과 선택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가치 공동생산’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구단과 방송사가 완성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팬은 이를 소비했다. 반면 스마트 경기장에서는 구단이 카메라와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팬이 이를 선택·조합해 자신만의 관람 경험을 만든다. 팬이 최종 수신자가 아니라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구성하는 편집자이자 공동생산자로 변모하는 것이다. 나아가 팬이 선택한 장면을 저장하고 SNS로 공유하면서 관람 경험은 경기장 밖으로 이어진다.

하이테크(Hi-Tech)가 곧 스마트 경기장인가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항상 좋은 관람 경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팬이 경기 내내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게 된다면 경기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현장 특유의 함성, 주변 관중과의 우연한 상호작용, 함께 응원하는 감정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실제 Deloitte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는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개인별 화면이 지나치게 분절된다면 수많은 팬이 같은 순간에 환호하고 아쉬워하는 스포츠의 집단적 경험이 줄어들 수 있다.

기술 접근성의 격차도 고려해야 한다. 고가의 기기나 특정 통신서비스 이용자만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다면 스마트 경기장은 일부 팬만을 위한 프리미엄 공간에 머물게 된다. 복잡한 앱 사용법, 경기장 내 통신 지연, 배터리 소모, 개인정보 보호 및 초상권 동의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 경기장의 핵심은 기술의 양이 아닌, 관람객이 원하는 순간 적절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있다. 지속적인 이용자 조사를 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이면서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화된 화면과 공동 응원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 시점과 방식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관련 데이터는 단기 광고가 아닌 장기적 팬 관계 형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균형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스마트함

결국 스마트 경기장이 만드는 가장 큰 변화는 더 선명한 화면이나 더 빠른 통신망이 아니다. 과거의 관중이 제작자가 선택한 장면을 바라보는 존재였다면, 미래의 관람객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경기의 모습을 직접 선택하고 해석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변화가 스포츠 관람의 진정한 확장으로 이어지려면 기술이 현장의 감정과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경기를 보더라도 각자의 시선으로 경험하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하나의 함성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개인화된 관람과 공동체적 경험의 균형, 그것이 스마트 경기장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스마트함이다.

두루미 자세 챌린지로 3초 만에 확인하는 상체 근력 및 균형 감각 테스트



평소 어깨 결림과 손목 통증, 무너진 코어 근육으로 남모르게 고민하던 분들, 여기 모여보세요.
발끝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순간 탈락,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진다면 패배입니다.
내 몸이 왜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두루미자세챌린지**에 도전하고
당신의 상체 근력과 코어 밸런스 성적표를 확인해 보세요!

글: 편집실 사진: 『바른자세 홈요가 127』 (사토리 산카라, 구보 레이코, 삼호미디어, 2019)

두루미 자세 (바카아사나) 하는 방법

1

두 손을 어깨너비로 벌려 바닥에 대고 쪼그려 앉은 뒤, 무릎을 겨드랑이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져갑니다. 발끝으로 선 상태에서 팔꿈치는 뒤로 살짝 구부립니다.

배꼽_밀어올리기 # 발끝으로_서기



2

시선을 비스듬한 앞쪽에 두고, 발끝을 바닥에서 살짝 띄우며 천천히 두 손으로 체중을 이동시킵니다. 악력을 이용해 손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듯 지탱합니다.

중심_이동 # 비스듬히_앞쪽_보기



초보자는 여기까지

3

중심을 완전히 앞쪽으로 옮기면서 구부렸던 팔꿈치를 곧게 펴줍니다. 동시에 복부를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리고, 발끝을 엉덩이 쪽으로 바짝 당겨 올리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팔꿈치_펴기 # 손목_부담_줄이기



상급자만 도전가능

챌린지 결과로 보는 나의 등급



성공!

발끝을 가뿐하게 들어 올리며 흔들림 없이 균형을 잡았나요?

상태 몸을 작게 접어 올릴 수 있는 탄탄한 코어 근육과 체중을 견뎌내는 팔, 어깨, 손목의 근력이 매우 잘 발달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력까지 최상위권입니다.



실패!

발끝이 바닥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거나,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상태 팔과 어깨의 기초 근력이 다소 부족하고 손목 관절이 굳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리하게 다리를 들려고 하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까마귀 자세부터 연습한 후 두루미 자세로 넘어가세요.

부족한 힘을 채워줄 맞춤 운동

성공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세요!

실패했다면? (초급자 추천 자세)

까마귀 자세



두루미 자세가 버겁다면,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까마귀 자세'부터 연습해 보세요. 무릎을 팔꿈치 바깥쪽에 기대어 고정된 뒤, 좌우 복사뼈를 가까이 모으고 배꼽을 위로 당겨 올려봅니다. 손가락 끝의 악력으로 바닥을 붙잡아 보세요.

성공했다면! (상급자 도전)

옆 두루미 자세



두루미 자세를 성공했다면, '옆 두루미 자세'에 도전해 보세요. 상체를 한쪽으로 비틀어 양쪽 무릎을 한쪽 팔꿈치 바깥쪽에 나란히 모아 밀착시킵니다. 옆구리와 복사근의 수축을 이용해 두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상급자용 암밸런스 동작으로 코어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절도 있는 파워와
단단한 협동심으로**



서울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대회 우승까지 안았던 영신여자고등학교 치어리딩팀 '퀸즈(Queens)'가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폭발적인 에너지와 칼군무가 돋보이는 '액션 치어리딩'으로 오는 9월 서울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제패를 노린다.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도 서로 힘을 더해 하나의 대형을 완성해 가는 퀸즈 단원들은 오늘도 무대 위 가장 찬란한 응원을 준비하고 있다.

글. 심정윤 사진. 이재형 영상. 김지혜

영신여자고등학교 치어리딩팀 <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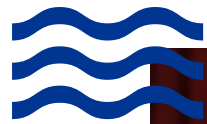
영신여자고등학교 치어리딩팀의
활력 넘치는 훈련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무대를 사로잡는 파워풀한 에너지
전통의 강호 '퀸즈'의 새로운 도전

학업 열기가 뜨거운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방학 중에도 영신여자 고등학교 체육관은 학생들의 힘찬 기합 소리와 음악 소리로 가득 차 있다. 1, 2학년 학생 11명으로 구성된 영신여고 치어리딩팀 '퀸즈'는 지난 2018년 창단 이래 교육감배 대회 상위권 입상은 물론 전국대회 우승까지 거머쥔 명실상부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의 강호다.

올해 퀸즈는 팀 운영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이수재 체육교사가 치어리딩팀을 새롭게 맡고, 하지선 전문 강사가 전반적인 치어리딩 동작 및 안무를 지도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팜(Pom)'을 들고 유연성과 무용적 테크닉을 강조하던 '팜댄스 치어리딩'에서, 절도 있는 파워 모션과 강렬한 응원가를 바탕으로 관중을 사로잡는 '액션 치어리딩'으로 종목을 바꾼 것이다. 대회를 앞둔 방학 기간, 단원들은 일주일에 3~4회, 회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체육관에 모여 치어리딩 연습을 한다. 스포츠클럽 대회 규격에 맞춰 편곡된 2분 이내의 빠르고 웅장한 템포 음악에 맞춰 응원 동작과 대형을 맞춰가는 중이다. 치어리딩 동작을 주로 지도하는 하지선 강사는 "아이들이 액션 치어리딩을 처음 접하는데도 협동심이 워낙 강하다"며 "2학년이 1학년을 끌어주고, 스스로 모자란 부분을 먼저 물어보는 모습들이 기특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영신여고 치어리딩팀 '퀸즈'는
지난 2018년 창단 이래
교육감배 대회 상위권 입상은
물론 전국대회 우승까지 거머쥔
명실상부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의 강호다.
”





손끝까지 실리는 파워와 절도

연습으로 완성되는 완벽한 동기화

“브이자 대형 만들었을 때 앞 사람 머리가 보이면 안 돼! 하-나, 두-울, 세-엣, 네-엣!” 하지선 강사의 구령에 맞춰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갖춘다. 팔과 손끝 동작에 힘을 싣고 하나로 모으는 과정은 파워풀한 힘과 정교함을 동시에 요구한다.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은 학생들이 협동심과 신체 표현 능력을 기르는 대표적인 단체 체육 활동이다. 특히 퀸즈가 새로 도전하는 액션 치어리딩은 미국식 팸댄스 치어리딩과는 달리 한국 대학 응원단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굽고 선이 강한 팔동작, 상체 튕김, 관중의 호응을 유도하는 파워, 소위 ‘칼군무’가 제대로 나오는지와 같은 ‘협동심’이 핵심 평가 항목이다. 팔과 다리의 동작 각도를 맞추고, 반복 훈련을 통해 연속 루틴을 몸에 익히는 체력전이 이어진다. 처음에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몸을 뒤로 보며 돌리는 동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복 연습 앞에 불가능은 없었다. 2학년 서세민 학생은 “선배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연습한 덕분에 이제는 손끝까지 확실하게 힘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등학교 때 팸댄스 치어리딩으로 입문해 중학교 때 팀의 응원 단장으로 활동했던 1학년 김현지 학생 역시 “빠른 템포의 곡에 화려한 동작을 구성해 펼치는 것이 치어리딩의 매력”이라며 “‘질풍가도’나 ‘승리를 위하여’처럼 웅장한 곡에 맞춰 무대를 완성할 때 가장 짜릿하다”고 웃어보였다.



“우리의 응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는 순수한 열정

치어리딩이 주는 가장 큰 에너지는 타인을 향한 ‘응원’과 단원들 간의 ‘신뢰’에서 나온다. 학업 스트레스와 중압감 속에서도 연습하는 시간만큼은 잡념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풀린다.

퀸즈의 단장을 맡고 있는 2학년 정서원 학생은 “1학년 입학 당시 선배들의 동아리 홍보를 보고 감명을 받아 입단했다”며 “팔을 돌려 몸을 보내는 고난도 동작이 안 될 때는 집에서 매일 따라 했다. 단원들과 박자에 맞춰 동작이 딱 떨어질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세민 학생 또한 “체육대회나 축제 무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살려주고 응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치어리딩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클럽 학생 전반을 이끄는 이수재 교사는 “학업과 대회를 병행하느라 아이들이 고생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번 도전을 통해 평생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한다”고 따뜻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강사 역시 “틀리거나 실수해도 좋으니 부상 없이 안전하게 연습한 만큼 보여주고 나오길 바란다”며 격려를 건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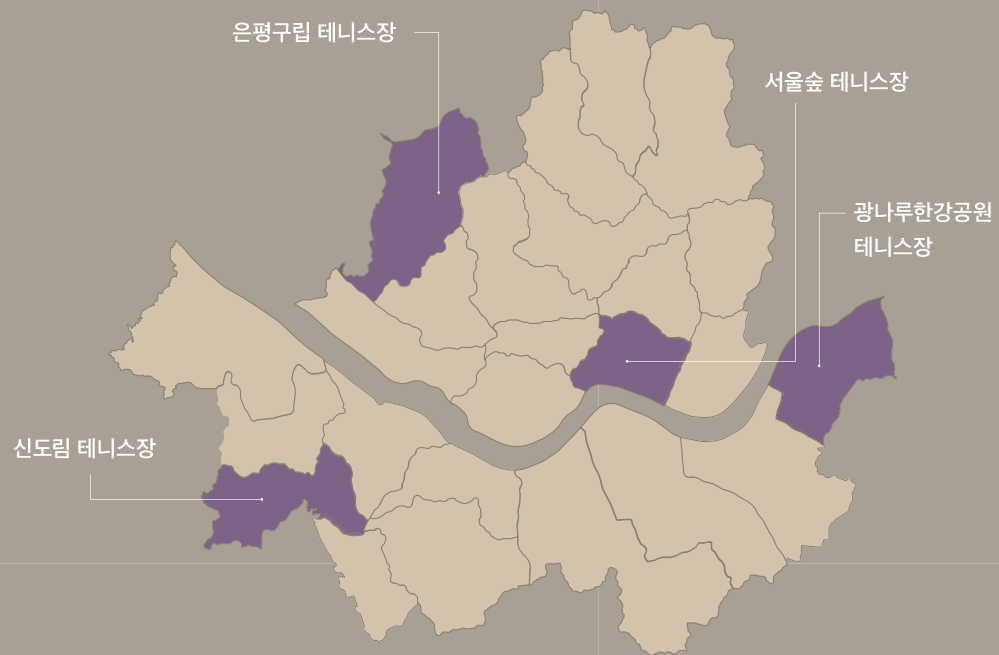
“대회 우승을 목표로 다 같이 파이팅하자!”라는 단장 정서원 학생의 외침처럼, 서로의 실수를 메워주며 하나의 단단한 무대를 만들어가는 영신여고 ‘퀸즈’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에너지를 발산할 이들의 당찬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영신여자고등학교 이수재 체육교사 & 하지선 치어리딩 전문강사

영신여자고등학교 치어리딩팀 ‘퀸즈’는 서울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입상 및 전국대회 우승 경력을 보유한 전통의 강호다. 2026년부터 이수재 체육교사와 하지선 치어리딩 전문 강사가 팀을 이끌어 기존 팸댄스 치어리딩에서 ‘액션 치어리딩’으로 종목을 전환했다. 방학 기간에도 주 3~4회 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서울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우승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드라마 <나쁜 기억 지우개>에서는 과거 테니스 유망주였던 형 이군(김재중 분)과 세계 랭킹 1위 테니스 스타인 동생 이신(이종원 분)의 역동적인 경기 및 볼꽃 튀는 코트 위 승부가 펼쳐진다. 드라마 속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 테니스 코트는 화려한 영상미와 함께 테니스 동호인들의 운동 욕구를 자극한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코트를 누비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직접 라켓을 잡고 코트로 나설 때다.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시내 주요 공공 테니스장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각 시설관리공단 제공



서울시 안의 테니스 명소 4곳

가을의 낭만과 함께
도심 속 활력 충전!



광나루한강공원 테니스장

시원하게 트인 한강 수변 풍경을 배경 삼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테니스장으로, 한강의 경치를 즐기며 클레이코트에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다. 울통불통함 없이 고른 컨디션으로 관리되는 클레이코트로, 공의 바운드도 안정적인 편이며 땅이 폭신해 열정적인 플레이 후에도 무릎에 부담이 덜하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이용해 코트 예약을 할 수 있다. 야간 조명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시야 확보도 잘되어 직장인들의 '야테(야간 테니스)' 장소로 인기가 높다.

한강의 노을을 바라보며 동호회 회원들과 땀 흘린 뒤 나누는 시원한 음료 한 잔은 야간 테니스의 매력을 더해준다. 붉게 물드는 수변 풍경 속에서 랠리를 주고받다 보면 계절의 운치와 함께하는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 83-106

🕒 평일·주말 06:00 ~ 22:00

💰 2시간 기준 5,000원



은평구립 테니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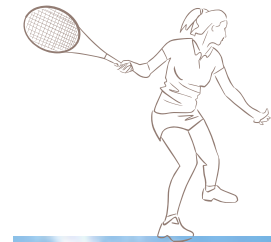
북한산 자락의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테니스를 즐기고 싶다면? 은평구립 테니스장에 가보자. 인조 잔디로 된 3개의 코트로 이루어져 있고, 테니스장 옆에 바로 아파트가 있어 인근 주민들과 함께 테니스 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근처 근린공원이 마련돼 있어 테니스뿐 아니라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은평구민체육센터 내 체육 인프라와 연계되어 부대 편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다.

드높은 가을 하늘과 웅장한 북한산 단풍을 병풍 삼아 연인과 함께 스포티한 데이트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테니스 경기를 마친 뒤 인근 근린공원을 도란도란 걸으며 산책을 즐기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단풍 구경까지 겸하는 주말 나들이 코스가 완성된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40

🕒 평일·주말 09:00 ~ 18:00

💰 1시간 기준 10,000원 (주말 및 VAT 포함 기준 14,300원)



서울숲 테니스장

울창한 수목에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인조잔디 코트다. 게이트볼장 뒤에 위치한 테니스장은 5개의 코트로 이루어져있고, 코트 양 끝에 벤치가 있어 경기를 하면서 휴식하기가 편리하다. 이중 1번 코트에 해가 가장 늦게 들어 그늘진 코트 아래에서 시원하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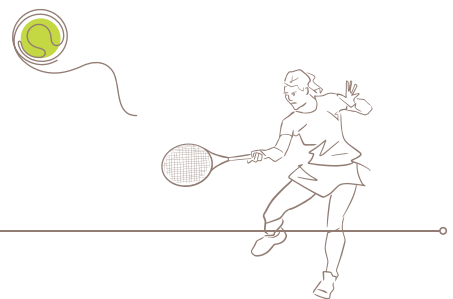
타인의 플레이에 방해받지 않도록 코트마다 독립성을 높여주는 볼네트가 설치되어 있어 경기에 한층 더 몰입할 수 있다.

바삭거리는 낙엽 소리가 정겨운 계절, 알록달록 물든 숲속에서 가족들과 가벼운 랠리를 이어가며 건강과 웃음을 동시에 챙기기에 제격이다. 코트 옆 벤치에 함께 모여 앉아 따스한 별을 받으며 서로를 향한 응원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함께하는 일상도 어느새 더욱 풍요로워진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273

🕒 3~10월 06:00 ~ 19:00 / 11~2월 08:00 ~ 17:00

💰 1시간 기준 평일 4,000원 / 주말 및 공휴일 5,200원



신도림 테니스장

도림천 변에 자리해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과 가까운 이곳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테니스 시설이다. 신도림생활체육관 주차장에 주차한 뒤 코트까지 걸어서 가면 4개의 코트가 넓게 자리한다. 하드코트로 구성돼 있어 바닥이 단단하고 거친 편이다. 야간 조명이 밝은 편이라 사각지대 없이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어 인근 구민과 직장인들이 꾸준히 찾는 테니스 시설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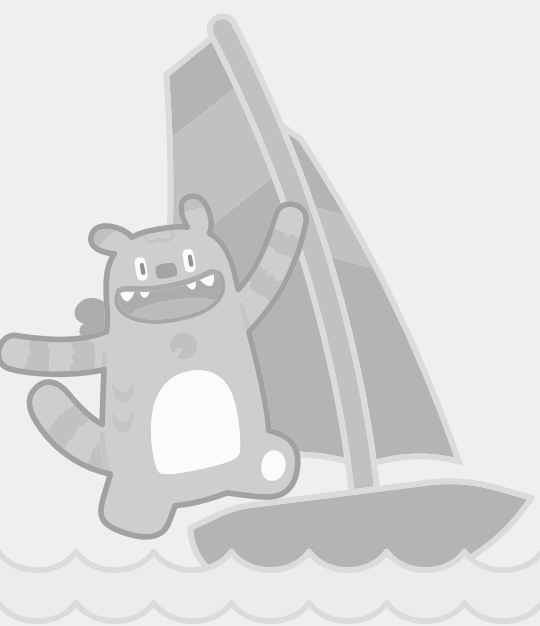
퇴근 후 기분 좋은 밤공기를 마시며 동료들과 가볍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최적의 도심 속 아지트이다. 밝은 조명 아래 랠리가 이어질 때마다 서로를 응원하는 함성이 퍼지며 지친 일상에 활력을 가득 채워준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01

🕒 평일·주말 07:00 ~ 19:00 (야간 19:00 ~ 21:00)

💰 2시간 기준 평일 주간 10,000원 / 주말 및 야간 13,000원 (조명 사용료 3,000원 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NEWS



Seoul Sports Council News

서울특별시체육회,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D-50 필승 결의대회 개최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8월 27일 오후 4시 서울시체육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D-50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수단 사기 진작과 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50일 앞두고, 서울시 선수단의 목표 특점인 6만 점 달성을 향한 의지를 모으고 현장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서울시체육회 부회장단과 사무처장을 비롯해 서울시청, 자치구청, 공단, 자치구체육회, 사기업 소속 실업팀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 34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회식과 내빈 및 지도자 소개를 시작으로, 지도자 대표 5인의 출사표 발표를 들으며 대회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어 서울시체육회 임원진의 격려 말씀과 함께 선수단 지도에 애써온 지도자 34명에게 총 1,02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이 ‘TEAM SEOUL 6만 점 달성’과 ‘함께 뛰는 서울! 승리를 향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단체 구호를 제창하는 필승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한편, 이번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서울특별시는 50개 종목에 약 2,1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6만 점 달성을 목표로 선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숙원 사업 결실 광진구 별관 개관으로 체육 행정 효율성 극대화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회원종목단체 사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관을 개관하고, 서울 체육 행정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8일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약 500평(연면적 1,650㎡) 규모의 별관을 공식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별관 개관으로 그동안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 쓰거나 공간 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14개 회원종목단체가 한곳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들이 중랑구 청사와 이번 광진구 별관으로 각각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마땅한 보금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회원종목단체들의 공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함과 동시에, 서울 체육 행정의 통합성과 업무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린 쾌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별관 내 회의실, 소통 공간, 행정 지원 시설 등 단체 간 연계 업무를 위한 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고 체육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크게 기대됩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그동안 공간 제약으로 흩어져 있던 회원종목단체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별관 개관은 단순한 공간 확보를 넘어 서울 체육이 하나로 뭉쳐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앞으로도 회원종목단체들과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체육 행정을 펼치며, 서울시민과 체육인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법무법인 와이케이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기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검토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법률자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법인 와이케이(YK)와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7월 14일, 6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대표변호사 강경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과 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체육회가 각 사업 및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이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 ▲상호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이번 법률자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관의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체육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체육 발전 및 체육인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체고 선수단에 격려금 전달 “제107회 전국체전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서울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서울체육고등학교 선수단을 찾아 격려금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서울체육고등학교(교장 송길성)를 방문하여 다가오는 제107회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맹훈련 중인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하계 고강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체육회는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훈련 여건 및 시설 현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이 오롯이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과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는 매년 전국체전에서 서울특별시 선수단의 핵심 전력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합 순위 상위권 달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미래 체육 인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체육회는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며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제107회 전국체전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개최 밴쿠버 김 이정수 특강 진행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최전선에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활력 넘치는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장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8월 12일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실무 전문성을 대폭 끌어올리고, 점차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스포츠 수요에 부응하여 한층 수준 높은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직무교육에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에 빛나는 이정수 선수가 특별 강사로 초빙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정수 강사는 오랜 기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로서 쌓아온 생생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포츠 현장과의 효과적인 소통법과 지도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교육 과정에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스포츠 지도 기법과 응급처치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물론, 건강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및 폭력 예방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서울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지도자들의 내실 있는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 편성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선수단, 대만 화롄 ICG서 금 4·은 3·동 3 쾌거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표 선수단이 ‘2026 국제청소년스포츠포츠대회(ICG, International Children’s Games)’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는 지난 8월 1일부터 6일까지 대만 화롄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 양궁, 태권도, 탁구 3개 종목 선수단을 파견해 전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26개국 70여 개 도시의 대표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서울시 선수단은 양궁과 태권도, 탁구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양궁에서는 정현우(방이중 3)가 남자 리커브 개인전 정상에 오른 데 이어, 김윤조·박예준과 함께 출전한 남자 리커브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어 김효빈(양화중 3)이 여자 컴파운드 개인전 은메달, 리커브 혼성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해 양궁에서 금 2개, 은 1개, 동 1개를 거두었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최태민(중화중 3)이 남자 통합 -78kg급, 박서하(중화중 3)가 여자 -52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조성현(중화중 3)은 여자 -59kg급 은메달, 정혜린(중화중 2)은 여자 -44kg급 동메달을 보태 태권도 종목에서 금 2개, 은 1개, 동 1개를 거머쥐었습니다. 탁구 종목에서는 김지유(문성중 1)가 여자부 은메달, 김현중(대광중 3)이 남자부 동메달을 각각 추가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대만 화롄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준 청소년 선수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며 “이번 국제대회 참가 경험이 선수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제107회 전국체전 앞둔 한국체대에 4억 4,000만 원 지원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서울시 대표로 출전하는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 선수단을 위해 총 4억 4,000여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의 이번 지원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한국체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온 연속성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로 체육회는 지난 2025년(4억 4,300여만 원)에 이어 올해도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변함없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달된 예산은 선수들이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펜싱·하키·복싱 등 주요 종목의 현지적응 합숙 훈련비를 비롯해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비, 취약종목 구상팀 지원비 등으로 다각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20개 종목 93명의 유망선수를 비롯해 전문체육지도자 지원과 격려금까지 포함해 선수단 운영 전반을 두텁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관계자는 “서울시를 대표해 출전하는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오직 훈련과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흘린 선수들의 땀방울이 이번 제107회 전국체전에서도 빛나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회원단체 뉴스

서울시컬링연맹, 2026 서울-상하이 국제컬링교류로 양 도시 우정과 스포츠 교류의 새 지평 열어



서울특별시컬링연맹(회장 박강규)이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2026 서울-상하이 국제컬링교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컬링연맹과 상하이 컬링협회가 쌓아온 두터운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양 도시의 선수단과 임원진은 친선경기를 비롯해 다채로운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단체 운영 노하우 공유의 시간을 가지며 컬링 발전 및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 구축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특히 미래 한국 컬링을 이끌어갈 세헌고등학교, 수명중학교, 서울 컬링클럽의 학생 선수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의 기술과 경기 운영 방식을 교류하고, 컬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방문 기간 중 서울특별시컬링연맹은 상하이컬링협회와 향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 기관은 선수 및 지도자 교류,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강규 서울특별시컬링연맹 회장은 “이번 교류는 경기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상하이와의 우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서울 컬링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컬링연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선수들의 현장 실전 경험을 넓히는 한편, 서울 컬링의 위상 제고와 글로벌 스포츠 네트워크 확장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2026 서울시민리그 배드민턴 리그, 정식종목 채택 7월 25일 서북권역 리그 개막

서울특별시배드민턴협회(회장 최호림)가 주관하는 ‘2026 서울시민리그 배드민턴 리그’가 올해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서울시민리그의 배드민턴 리그는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축제입니다. 지난해 시범종목으로 첫선을 보인 배드민턴 리그는 1,264개 팀, 2,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와 호응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정식종목으로 격상되었으며, 참가 규모 역시 약 2,500개 팀, 5,0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 서울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배드민턴 리그로 도약하게 됩니다. 서울시배드민턴협회의 내실 있는 준비 속에 개최된 이번 리그는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서북권역 리그’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서 권역별 예선리그를 순차적으로 치릅니다. 예선을 거친 우수 팀들은 최종 결선대회에 진출해 서울 최고 팀의 자리를 두고 정당한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서울시민리그는 연령과 실력에 관계없이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리그’를 지향합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생활체육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특히 승패를 넘어선 감동의 순간들도 함께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시범리그에서는 의족을 착용한 선수가 끝까지 경기를 완주하는 투혼을 발휘해 많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서울특별시배드민턴협회는 앞으로도 장애나 제약 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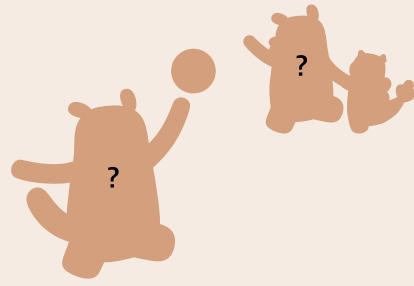


회원단체 행사

구 분	행사명	일 시	장 소	주최/주관	참가인원
성북구체육회	제4회 성북구회장배 요가대회	9.5.(일), 10:00	성북구청 지하1층	성북구요가회	미정
	제12회 성북구청장배 이종격투기대회	9.5.(일), 13:00	종암 박스파크	성북구이종격투기연맹	200명
	제45회 성북구청장기 축구대회	9.20.(일), 10.25.(일) 개회식 : 9.20.(일), 08:00	국민대학교 또는 월곡중학교(미정)	성북구축구협회	700명
중구체육회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	9.5.(토)	무학봉체육관	중구탁구협회	100명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대회	9.5.(토)	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	중구줄넘기협회	250명
	제25회 중구청장기 및 제23회 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	9.11.(금)	대현산배수지공원	중구게이트볼협회	140명
	제33회 중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9.12.(토)~13.(일)	훈원원공원체육관	중구배드민턴협회	600명
	제1회 중구청장배 및 제2회 협회장배 브리지대회	9.30.(수)	반얀트리 호텔 앤 스파 서울	중구브리지협회	100명
중랑구체육회	제5회 협회장기 서핑대회	9.4.(토)~5.(일)	양양 기사문해변	중랑구서핑협회	200여명
	제15회 중랑구청장배 및 연맹회장배 수영대회	9.6.(일)	중랑문화체육관	중랑구수영연맹	-
종로구체육회	2026 서울시민리그 배드민턴리그(동북권역)	8.23.(토)~24.(일)	도봉구 다락원배드민턴장	서울시, 서울시체육회 / 서울시배드민턴협회	800명
	제40회 서울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8.30.(일)	마곡실내체육관	서울시배드민턴협회 ※ 후원 : ㈜동아오츠카	3,000명

숨은 해치를 찾아라!

사진 속에 숨은 해치를 찾고 커피 기프트콘을 받아보세요!



참여 기간

2026년 9월 3일 ~ 2026년 9월 30일

참여 방법

- ① 숨어 있는 해치의 수를 셉니다.
- ② QR코드를 스캔해 구글폼에 접속합니다.
- ③ 해치의 수를 적어 제출합니다.

당첨자 발표

개별 연락

당첨 선물

투스럼플레이스 커피 쿠폰 (20명)



응모하기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도심 속에서 즐기는 산악문화

- ☑ 도전 정신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체험공간
- ☑ 국제대회 유치 가능한 클라이밍 실내외 인공암벽장
- ☑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암벽체험



예약하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 ☎ 02)303-8858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공간이 찾아옵니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지역주민 누구라도! 시민 모두가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상생 체육시설
장벽 없이 함께 어울리며 스포츠로 하나되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개관을 축하해주세요!



지하
볼링장



지상 1층
수영장



지상 2층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지상 3층
실내체육관